

#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,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관계<sup>3)</sup>

## Emotional Labor, Social Support, and Depressive Symptoms of Clinical Nurses in a Province, Korea

김 하 자, 김 정 희<sup>4)</sup>

제주대학교병원 수간호사,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

**목적 :**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근로자 자신보다는 조직이 근로자 자신의 감정표현을 통제한다는 측면으로부터 기인되며,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정체성이나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하게 만든다.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사회적지지, 우울 수준과, 이들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임상간호사에 대한 병원 복지, 인적자원관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.

**방법 :**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일개 지역에 소재하는 4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3개월 이상의 경력 간호사 314 명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.

**결과 :** 본 연구대상자들은 중간 이상 정도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며, 과반수 이상이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고, 특히 임상경력이 짧은 간호사, 연령이 낮은 간호사, 일반간호사, 미혼자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. 또한 감정노동 중 특히 표면행위를 많이 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고, 지각된 개인 및 조직적 지지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및 우울 수준이 낮았다

**결론 :**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고객만족에 대한 병원 간의 경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병원의 요구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서 간호사의 우울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노동, 특히 표면행위를 낮추는 전략을 고려하고, 병원차원의 조직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과, 환자와 대면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동안간호사들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도록 하거나, 표면행위를 낮추는 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. 또한 20대의, 임상경력이 짧고 낮은 월급여를 받는 미혼인 일반간호사들을 표적 집단으로 한 우울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

〈정리 : 김영미 부산남부발전 보건관리자,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출판이사〉

3)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11년 11월호 (20권 제3호) 게재  
4) 교신저자 : 김정희, Kim, Jeong-Hee, snukjh@jejunu.ac.kr